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윤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Iowa
파견대학	Iowa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1년 (2022-2 ~ 2023-1)
귀국여부	예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아이오와주는 미국 중부에 위치해 있고 ISU는 그 중에서도 Ames라는 도시에 캠퍼스 타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도보로 3-40분 내에 끝과 끝을 다닐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학교가 나름 다 평지라 걸어다닐만 했습니다만, 학교랑 도시 구석구석 셔틀버스가 잘 다녀서 버스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학교 건물들은 이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신식 건물들이 많고 꾸준히 새 건물도 세우고, 리모델링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로 지낸 비즈니스 건물은 새 건물이라 강의실과 휴게실, 카페 전부 쾌적했습니다.</p> <p>아이오와주 자체가 도시와 거리가 멀고, 제일 변화한 디모인이라는 도시와도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여서 학교는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대신 놀거리는 학교 앞 펍이나 바 등 밖에 없습니다,, 대신 밤에 다녀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신창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p>
2022-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SCM 461 Principles of Transportation                      INTST 235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Studies                      COM S 113 Introduction to Spreadsheets and Databases                      W F S 278 Introduction to Global Film                      (참고로 수업은 앞자리의 숫자가 높을 수록 고학년, 고난도 수업입니다.)</p> <p>SCM은 전공수업이라 들었습니다. 처음 영어로 듣는 수업에 졸업 학년</p>

	<p>수업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전공 관련 수업이라 아는 내용이 많았어서 제일 수월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운 위주의 물류를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미국 물류 답게 철도, 도로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p> <p>INTST도 전공관련이었는데, 해외 이슈 등을 매 시간 다르게 다뤘습니다. 매주, 매 수업마다 책 반 권 분량을 읽고, 토론 준비를 해야 했고 수업마다 30분 정도의 조별 토론, 보고서 작성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은(많이) 빠졌지만 토론 수업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p> <p>COM S 수업은 엑셀이랑 엑세스 수업이었습니다. 실기위주의 수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따는 컴퓨터활용능력시험 실기랑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엑셀을 아직 많이 접할 기회가 없던 저한테는 제일 재밌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과제 꾸준히 하고 시험 적당히 보면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p> <p>W F S는 우리학교 소설과 영화 교양과 비슷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었고 매주 해당하는 영화 한 편을 보고 감상평을 썼습니다. 제일 부담없이 들은 수업이었습니다. 참고로 반학기(8주)짜리 수업입니다. 3학점</p> <p>아래 두 수업은 단과대 교양 대체했습니다.</p>
<p>2023-1학기 수업</p>	<p>ACCT 284 Financial Accounting STAT 226 Introduction to Business Statistics AMD 375 Omni-Channel Retailing ARTIS 210 Studio Fundamental: Photo</p> <p>ACCT 수업은 재무회계로 전공이었습니다. 대형 강의실에서 듣는 수업이고 200가까이 되는 수의 학생이 한 번에 듣기 때문에 수업시간엔 1:1 코칭이 안 되지만 이런 숫자 관련 수업들은 lab과 tutoring이 잘 돼있기 때문에 만일 수업에 따라가기 힘들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200번대 강의이기에 기초여서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배우던 것과 내용은 같지만 어려운 회계용어를 또 영어로 배우다보니 용어 공부에 힘들었습니다. 매주 2개의 과제와 퀴즈/ 한 학기 총 3번의 중간고사, 1번의 기말고사가 있습니다..</p> <p>STAT도 전공수업으로 통계 기초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를 공부했던 학생이면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업이었습니다. 이</p>

	<p>수업 또한 lab과 tutor가 많이 있어서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도 일주일에 두 번의 과제, 퀴즈/세 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존재하지만 mid, final 시험의 비중이 90%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더욱 집중해야합니다.</p> <p>AMD또한 전공으로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녹화 강의였고, 퀴즈만 풀면 되는 간단한 강의였습니다. Quizlet을 적극 활용해보세요</p> <p>ARTIS는 제가 이 학교에서 제일 듣기 좋았다고 생각한 강의입니다. 반 학기짜리 강의로 8주간 듣습니다. 필름카메라 관련 강의입니다. 직접 수동필름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암실에 들어가서 사진 현상도 합니다. 한 강의에 10명 안팎으로 듣는 소규모 강의이고 실습 위주의 강의라 재밌게 들었습니다. 필름카메라 현상을 맡겨만 봤지 직접 약품 처리하고 enlarge해서 현상을 해보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필름카메라도 교수님께서 빌려주시기 때문에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학교에 ISSO라는 국제학생들을 담당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초반에 교환학생들만을 관리해주는 Nicole도 있지만, 학기 시작하고나면 대부분을 isso에서 관리해줍니다.</p> <p>한 달에 2-3번씩 신청하면 다른 지역으로 밥먹으러도 가고, 방학 중에 몰에 가기도 하고, 스키트립 등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p> <p>생활하다 비자 문제나 택스 서류 등 전부 이 부서에서 처리해줍니다.</p> <p>저는 학교 Dining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학생 job은 DSSO라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시간표에 맞춰서 원하는 근무나 시간 매칭을 해줍니다. 학기 시작하기 직전에 관련 홍보 메일이 올텐데 관심있으면 신청을 빨리하시면 좋습니다. 기숙사에서 가까운 곳이 인기가 많습니다.</p> <p>제가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제일 하길 좋았다고 생각한 것이 dining에서 일한 것입니다. 제일 현지 친구들과 가까워서 오래 지낼 수 있었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할 땐 시급은 13달러였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8월부터 10월을 무지 덥습니다. 해가 뜨겁고 건조합니다.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더 덥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겨울입니다. 11월 초부터 눈이 왔습니다. 눈은 한 번 오면 발목 높이는 기본으로 오고, 4월 말까지 눈이랑 우박은 꾸준히 왔습니다. 거의 반 년은 눈속에서 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롱패딩과 방한 용품들은 필수입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전기담요를 사서 썼는데 캐리어 자리 부족한 분들은 거기서 한 철 쓰고 버리고 오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p> <p>겨울용 신발도 하나 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p> <p>겨울이 길고, 건조한 도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학교에 경찰들이 가끔씩 돌아다니고, 오후 6시가 되면 새벽까지 saferide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로 불러서 이용하는 택시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학생들만을 위한거고 무료입니다.</p> <p>Saferide아니어도 셔틀이 10시까지 잘 다니기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위험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습니다. 안심하시고 학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input type="radio"/> ) 홈스테이 ( <input type="checkbox"/> ) 외부 숙소(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frederiksen이라는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학교 다른 기숙사들과 다르게 apartment suite형식이라 각 1인 1방에 부엌과 거실도 있는 기숙사입니다. 또한 mealplan을 사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기숙사입니다. 현지 학식을 매일같이 비싼돈 내고 먹고싶지 않았기에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숙사들에 비해 비교적 학교 강의실들과 멀지만 셔틀도 잘 돼있고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룸메들만 잘 만나면 유학생들에게 최고의 기숙사라고 생각합니다. 룸메들이 요리하는 거 같이 먹고 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o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o ) 직접 요리 ( o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앞에서 말했듯이 meal plan이 필수가 아닌 곳에 살았어서 1년에 50끼 먹을 수 있는 block plan만 구매했고, 대부분 장봐서 음식 해먹거나 가끔 밖에 식당에서 사 먹는 정도로 해결했습니다.</p> <p>Meal plan은 추천하지 않는 게 대부분 하루 3끼*15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지 학생들도 다 못 쓰고 버리거나, 마지막 주에 비싼 학교 매점에서 남은 meal plan 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기숙사 비용보다도 비싼 meal plan이기에 꼭 고민 하시고 구매하세요.</p> <p>학교 주변에 target, Walmart, Aldi 등 식료품점이나 마트가 다양하고,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아시안마트도 꽤나 있어서 충분히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학교에 꽤나 많은 노선들을 학생증만 보여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다닐 때는 대부분 도보나 셔틀을 이용했습니다.</p> <p>가끔 바에서 술먹고 방에 들어갈 때는 saferide를 이용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 약 170 + 80 (LA 출)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p>유학생들이나 현지 학생들 학교 내 보험이 자동적으로 들어질텐데 교환학생들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보험이 들어지기에 무조건 보험 관련 설명회가 있을 때 waiver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한국에서 드는</p>

		유학생 보험들으세요 무조건. 한국에서 들면 5-60만원이면 해결할 거 학교에서 들으면 2000불 넘습니다.
숙소	한 학기 2780불 *2	
식비	595불 (50 block plan) + a≡	먹는 양에 따라서..
교통비	여행 다닐 때 공항 나간 거 제외하면 안 씀	
책값	책값 + 수업료 한 학기당 약 300불	
기타1	여행 8000불 이상(시카고, 뉴욕, 서부)	
기타2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앞에서 말했듯이 정말 추운 도시입니다. 저는 여름보다 겨울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리 나쁘진 않았지만, 현지학생들도 winter blues라는 말을 할 정도로 겨울이 길어서 추위를 잘 못 견디거나 우울감을 잘 느끼는 학생들에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대신 눈이 몇 개월을 쌓여있다보니 다양하고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학교 다니면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또한 학교가 꽤나 시골이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욕이나 엘에이 등 도시들에 비해 덜 국제화가 된 느낌입니다. 언어 배우기에는 좋은 환경일 수 있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다시 한 번 학교 dining에서 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알바하는 거에 비하면 일이 쉽다 못 해 없는 수준이고, 학생들 상대로 일하는 것이고, 학생들과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small talk가 일상인 미국에서 충분히 그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도 접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 듣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소한 한국도 소개하고, 그들의 문화도 소개받고 일할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또한 저는 제 방에서 3분 거리에 dining에서 일했기 때문에 더욱 수월했던 것도 있습니다. 일하게 된다면 barista부분에

지원해서 스타벅스에서 일할 기회를 가져보세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미국 사람들이 활발하고 small talk 잘 하는 이미지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내향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이 성향을 쉽게 바꿀 수 없어 수업 중에는 조별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친구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많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해서 먼저 다가가고 말 걸고 끼워 달라고 하는 거 아닌 이상 이들은 이미 친해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별과제를 해봤던 친구들이나,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만 논 것 같습니다. 이들이랑만 친해져도 충분하긴 했습니다. 친구의 친구도 소개받고, 친구들이 여는 파티에도 몇 번 참석하다 보면 많이 애쓰지 않아도 기회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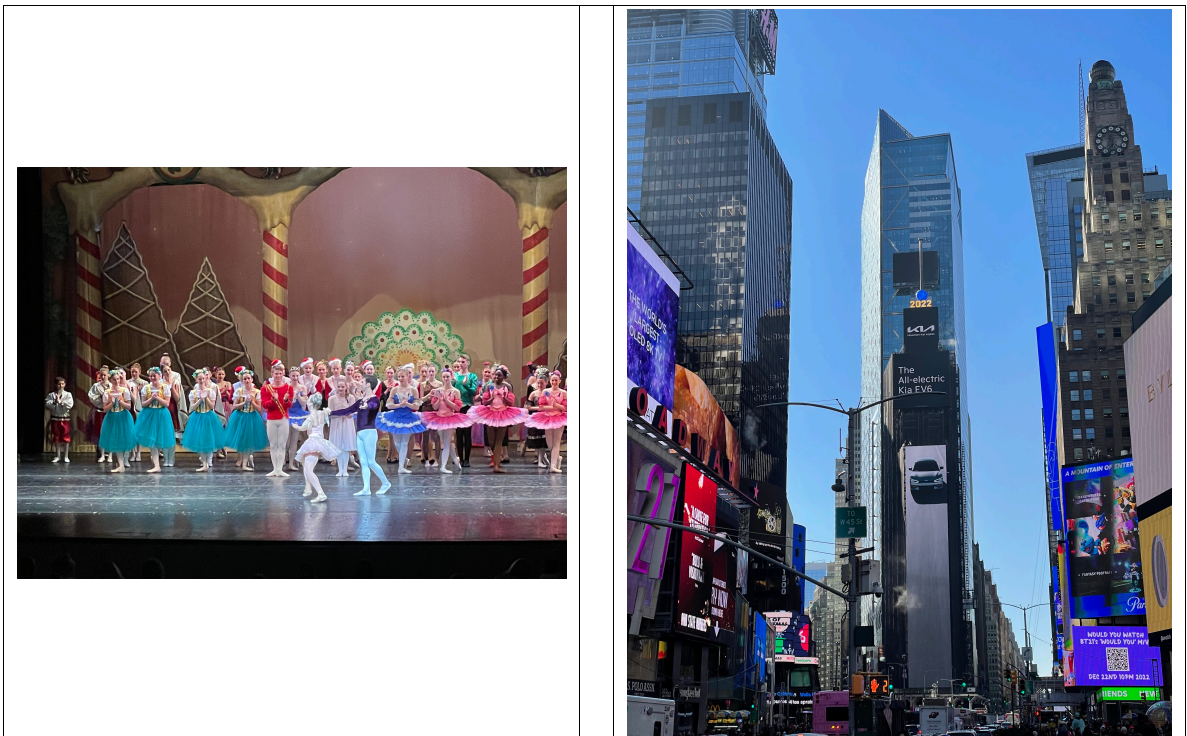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서 일취월장 느는 것보단 내가 알고있던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입밖으로 나오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공부 많이 하고 가세요,, 귀는 많이 트이긴 합니다. 1년이 길다고 생각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선 짧았습니다. 귀가 트이고, 입도 이제서야 트인다고 생각할 때 교환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이상으로 말 할 수 있고, 알아 듣는다면 많이들 배려도 해줘서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랑 많이 다르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에 대한 열정도 적고, 또한 주변 친구들에게 크게 마음 두지도 않습니다. 한 두번 말해본 사이어도 필요한 사이가 아니게 되면 인사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교환학생 관련해서 더 물어볼 것이나 궁금한 게 생긴다면 [yjhyjhee@gmail.com](mailto:yjhyjhee@gmail.com)로 주저없이 질문하셔도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정보 드릴게요 ☺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발레 공연



필름카메라 수업 암실

뉴욕 갔을 때



학교 프로그램으로 카트장



11월에 처음 눈왔을 때



할로윈파티